

#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지속 성장

### 2월 서비스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주문 건수 약 10만건 · 누적 주문액 20억원 달성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경기침체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지난 2월 서비스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가맹점 2900여 곳, 가입자 3만7000명, 누적 주문 약 10만 건, 누적 주문액 2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돕고 대형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전주맛배달은 △지역경제 선

순환 및 소상공인·소비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 △중개 수수료·가입비·광고료 제로(0%) 혜택 △전주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 연동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해 첫 가입·상생 배달료 등 다양한 쿠폰을 발행하고, 리뷰·화식비 지원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회·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가맹점 모집 △TV·라디

오·버스타류장·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 FC(주), 전주가매출제 협력 이벤트 추진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맹점과 가입자, 누적 주문건수 증가는 이런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목표로 잡은 가맹점 4000곳과 소비자 5만 명 확보를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 이벤트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반기 전주맛배달 주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전주맛배달 맞춤형 특

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맛배달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꾸준한 성장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홍보 활동과 가맹점 확보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상생·연대 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맛배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문의는 '전주맛배달'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1010)를 이용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한옥마을 문화시설 및 골목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은 부채문화관 전경)

## 전주한옥마을 야경에 운치 더하다

### 한옥마을 문화시설 · 골목길 야간 경관 개선사업 마무리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한옥마을 문화시설 및 골목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이 한층 아름다운 야경에 안전까지 더해지며 기존 낮 시간대 중심이었던 한옥마을을 관광이 밤 시간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한옥마을 중심도로인 태조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골목길 등에는 전통등 등 멋스러운 조명시설을 추가해 전주한옥마을만의 고풍스러운 운치를 야간에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전주한옥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청사초롱등의 경우 상가 조명이 꺼진 후에는 운영구역이 생겨 어둡게 보였지만, 이번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인해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음영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

부채문화관과 최명희문학관, 대시습청, 마루담, 완관본문화관, 창작예술공간 등 문화시설에도 외부 조명이 설치돼 한옥 문화시설에 '빛의 따뜻함'을 더하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어둡고 외진 골목길에 대해서는 전통등과 벽부등을 달아 정감 있고 안전한 골목길로 만들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야간에도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일회성 개선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경관정비로 여행객들에게 낯이 낯이나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의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 개소

### 31일 개소식 갖고 청년 맞춤형 정보 제공 · 정책 등 지원키로

전주지역 청년들의 전용 활동공간이자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이 문을 연다.

전주시는 오는 31일 지역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가 도시재생 거점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안산구 현무길 31-5) 1층에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청년이음전주'는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와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

청년 소통공간 △개인학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청년과 밀접한 9개 분야 26개 기관·단체들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도 구성돼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됐다.

시는 전북도 청년마루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청년친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다음달부터 △청년멘토링 프로그램 △문화클래스 △창작동아리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31일 청년이음센터 개소식에서는 지역청년문화예술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결과보고와 시설안내, 제막식 및 기념촬영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복을 세상으로'를

주제로 한 박세상 청년강사의 초청강연과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크업 △강점검사 상담소가 운영되고, 지역청년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일일카페 △홍보부스 △청년희망토코 △정책선호조사 등도 진행된다.

김종성 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음전주 개소식 및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청년이음전주가 전주시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대응하고 청년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 하는 청년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ESG 가치 확산 '민관협력 정책포럼' 개최

### 전주시,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협력방안 모색' 주제 진행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가치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2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기업인과 일반시민,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ESG와 민관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문성후 한국 ESG학회 부회장과 고창훈 CJ제일제당 부장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문성후 교수는 ESG 경영확산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ESG 경영확산에 따른 기

업들의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사례와 실행 방향성, 지자체의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창훈 CJ제일제당 ESG센터 환경전략팀 부장은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소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자용승 우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삼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석팀장, 민병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ESG경영과 지역사회공헌 △시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기업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전략 △기업의 ESG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지방정부와의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종합



전주시는 2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기업인과 일반시민,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ESG와 민관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이 진행됐다.

황관주 시 기획조정국장은 "기업이 ESG로 추구하는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는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

한 공통의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주시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전주시는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인권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경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원은 전날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계획과 방법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인권활동가, 분야별 인권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김병용 시 인권담당관은 "연구용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주시 특성에 맞는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주시만의 특화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